

CANKS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18.11.28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주알마티 총영사관

알마티 한국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20주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부산외대 CORE사업단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 20주년 특집

2018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에서 한국학 20주년기념 한국학 주간이 개최되었다.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지난 20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한국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려대 한국어센터,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부산외대 CORE 사업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내외 여러 대학 및 기관과 함께 한국학주간을 기획하였다. 한국학주간에는 21일에 진행된 한국학특강시리즈를 시작으로, 제 4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제 9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축하공연(사물놀이 몰개), 총동문회 등 다양한 교육, 연구, 교류, 문화 행사가 개최되었다.

한국학 20주년 기념 한국학주간 한국학특강시리즈 총동문회 (관련기사 pp.2-3)	제 9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제 4회 CIS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관련기사 p.4-5)	제 27회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회의 (관련기사 p.6)	제 6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2018 중앙아 한교협 정기총회 (관련기사 p.7)	2018 단기한국어교실 한국어 교사연수 대학생 교류의 날 (관련기사 p.8)
---	--	---	---	--

* 이 뉴스레터는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anks.asi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Tole bi 84,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canks.asia>
E-mail: cks@ablaikhan.kz

한국학 20주년 기념 한국학주간

2018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에서 한국학 20주년 기념 한국학주간이 개최되었다.

세계언어대는 1993년 제 2 외국어로서 한국어 강의가 시작되었으며, 1998년부터 정식으로 한국학 강좌가 개설되었다. 2012년 한국학센터를 개설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중양아시아에서 최초로 해외중핵대학사업에 선정되어 학술지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학술대회와 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중양아시아 한국학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현재 전공생 340명, 제 2 외국어 수강생 100명에 달하는 중양아시아 최대 규모의 한국학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지난 20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한국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려대 한국어센터, 한국외대 중양아시아연구소, 부산외대 CORE 사업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내외 여러 대학 및 기관과 함께 한국학주간을 기획하였다.

한국학주간에는 21일에 진행된 한국학특강시리즈를 시작으로, 제 4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제 9회 중양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축하공연, 총동문회 등 다양한 교육, 연구, 교류, 문화 행사가 개최되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한국의 5개국 13개 도시 20개 대학에서 학술대회와 올림피아드에 참석한 교원과 학생 120명은 폐회식 및 시상식에 앞서 한국에서 한국학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사물놀이 "몰개"(단장 이영광)의 축하공연을 보며 긴장을 풀 수 있었다.

학술대회는 우수발표상을 3팀(상금 각 500달러)에게 시상하였으며, 올림피아드는 1등 1명(700달러), 2등 1명(500달러), 3등 1명(300달러), 장려상 8명(각 50달러)에게 상금을 전달하였다.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차지한 최 이리나(세계언어대 3학년) 양에게는 상금과 함께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후원하여 1년간 한국어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한국학주간은 24일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총동문회를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학특강시리즈, 총동문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2018년 11월 22일(목)부터 25일(일)까지 한국학 20주년 기념 한국학주간을 개최하였다.

한국학주간에는 카자흐 세계언어대, 카자흐 국립대, 유라시아 국립대, 크질오르다 국립대, 광성컬리지, 카자흐-미국 자유대, 남카자흐 국립대, 타라즈 사범대(이상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한국대, 키르기스-한국대학, 비슈케크 인문대, 아라바예프대(이상 키르기스스탄), 타슈켄트 동방대, 니자미 사범대(이상 우즈베키스탄), 모스크바 국립언어대,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이상 러시아), 고려대, 한국외대, 세한대, 부산외대(이상 한국) 등 5개국 13개 도시 20개 대학에서 학생 및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학특강, 학술대회, 경시대회, 축하공연, 총동문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고려대 한국어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학특강(이동규, "한국어의 특징", 장경준, "한국의 문자생활과 한글")은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소개함으로써 세계언어대 학생들에게 한국학의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특강을 준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처음으로 개최한 세계언어대 한국학 총동문회는 한국학 교원, 졸업생, 재학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8년 4명의 신입생을 시작으로 현재 400명(전공 340명, 제2외국어 100명)이 넘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한 한국학과 20주년을 축하하였다.

또한 김형환 법인장(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과 김성태 회장(카자흐스탄 중소기업연합회)이 참석하여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한국학 20주년의 성과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한국학과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전공대학원생펠로십(석사 3명, 박사 2명),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생장학금(석사 3명, 박사 1명)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이 이어졌다.

사이케노프 아스하트(한국학 1회 졸업생) 등 동문대표들은 20년 만에 몰라보게 성장한 한국학과 교원과 재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의 선후배문화가 가지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향후 학과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동문장학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 9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한국학 20주년기념 한국학주간의 일환으로 2018년 11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이틀에 걸쳐 제 9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시대회에는 알마티, 아스타나, 크질오르다,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침켄트, 타라즈, 비슈케크, 타슈켄트,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등 4개국 10개 도시 16개 대학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선발된 32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다.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와 고려대 한국어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명실공히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학생 언어경시대회로 자리잡았다.

전체 개회식은 23일 세계언어대 동양학캠퍼스 210호에서 진행되었다. 개회식을 마치고 자리를 옮겨 테스트와 작문이 실시되었고, 이튿날 말하기가 실시되었다. 말하기 부문은 문성기 소장(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사무소), 성필상 소장(한국관광공사 알마티사무소), 이근중 교수(KIMEP 대), 이유직 영사(주알마티 총영사관), 장경준 교수(고려대 국문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내가 좋아하는 한국문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10년 뒤의 나의 모습' 중 무작위로 선정된 주제에 대해 즉석에서 발표한 참가자들을 심사하였다.

시상식을 겸한 폐회식에서는 문성기 소장과 장경준 교수가 한국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한 학생들과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심사 결과에 따라 1등 700달러(최 이리나, 세계언어대), 2등 500달러(알시호바 아이게림, 세계언어대), 3등 300달러(울란 로자, 카자흐 국립대), 장려상 8명 50달러씩의 상금이 주어졌다. 특히 1등을 차지한 최 이리나 양에게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어연수펠로십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대학에서 1년간 언어연수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9 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고려대 한국어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의 후원으로 여러 도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었다.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소장 한 넬리)는 입상에 실패한 참가자들을 위해 기념품과 참가증명서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제 4 회 CIS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2018년 11월 23일(금) - 24일(토) 이틀에 걸쳐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동양학캠퍼스에서 세계언어대 한국학 20주년 기념 한국학 주간인 일환으로 제 4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 학술대회 겸 인문학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문후속세대양성과 학술교류활성화를 통한 한국학 및 인문학 기반강화를 위해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고려대 한국어센터, 부산외대 러시아중앙아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부산외대 CORE 사업단 등이 후원하였다.

2016년 4월 제 1회 대회, 2016년 11월 제 2회 대회, 2017년 11월 제 3회 대회에 이어 4회째를 맞이한 올해 학술대회는 카자흐 세계언어대, 카자흐 국립대, 유라시아 국립대, 크질오르다 국립대, 카자흐-미국 자유대, 타라즈 사범대(이상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한국대(키르기스스탄), 타슈켄트 동방대, 니자미 사범대(이상 우즈베키스탄), 모스크바 국립언어대,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이상 러시아), 부산외대(한국) 등 5개국 10개도시 12개 대학에서 학생 및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하여 한국학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올해 신설된 우수발표상에는 에센베코바 카니케이(중앙아시아-한국대), 하미둘라예바 닐루파르(니자미 사범대), 술타날리 울잔, 투레바예바 아이다나(카자흐 세계언어대)의 3팀이 선정되어 상금(각 500 달러)과 상장을 수여하였다.

박 넬리 교수(카자흐 세계언어대 중핵사업단장)는 총평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한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경준 교수(고려대 한국어센터 교육실장)도 여러 대학에서 참가한 학생과 교수들의 한국학에 대한 열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고려대 한국어센터가 대회에 후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소장 한 넬리)는 CIS 지역의 한국학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해마다 11월에 정기적으로 대학(원)생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 27 회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회의

2018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동양학캠퍼스에서 제 27 회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고려대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NRF 한국연구재단,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이 후원하였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한국의 5개국 8개 대학(세계언어대, 카자흐 국립대, KIMEP 대, 크질오르다 국립대, 비슈케크 인문대, 타슈켄트 동방대, 파키스탄 국립외대)에서 40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하였다.

18일(월)에는 최호철 단장(고려대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의 개회사와 박 넬리 단장(세계언어대 AKS 중핵대학사업단)의 환영사에 이어 전승민 총영사(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축사로 학술대회가 시작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문학 교육 및 연구의 재검토"를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의 한국어문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고려대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은 2013년부터 한국어문학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한국어문학 연구와 교육에 대한 학술대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그동안 터키 에르지예스대, 멕시코 나야리트자치대, 브라질 상파울루대, 대만 정치대, 이집트 아인샴스대 등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한편,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중앙아시아 한국학 연구 및 교육의 선도적인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중핵대학 육성사업은 해외 대학 중 한국학의 역사가 깊고 기반이 탄탄한 대학을 지원하여 한국학의 핵심기관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아시아에서는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최초로 선정되었다.

19일(화)에는 "한국어와 교육", "한국문학과 문화"의 두 세션으로 나누어 한국어문학에 대한 다양한 깊은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이틀에 걸쳐 30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후,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한국어문학 교육 및 연구의 방향을 함께 모색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다음을 기약하며 국제학술대회를 마쳤다.



제 6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2018년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 동양학캠퍼스에서 제 6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이하 중앙아 한교협)가 주최하고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와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가 주관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후원하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한국의 4 개국 13 개 대학에서 40 여 명의 한국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21 일(목)에는 백태현 교수(중앙아 한교협 회장)의 개회사, 전승민 총영사(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관)의 환영사, 나삼일 교수(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의 축사로 학술대회가 시작되었다.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의 발전과 확산”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 참석자들은 중앙아시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한국학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갖추며 효율적인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의 연구 및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2 일(금)에는 중앙아 한교협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중앙아 한교협은 2013 년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년에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http://canks.asia>)를 개설하고,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연 1 회)와 소식지 <한국학뉴스레터>(연 2 회)를 발행하는 등 중앙아시아 한국학 대학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백태현 교수, 박 넬리 교수(카자흐 세계언어대 AKS 중핵대학사업단장), 한 넬리 교수(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소장), 박환 교수(수원대) 등은 폐회식 인사말을 통해 한국학 발전을 위한 지난 몇 년 간의 중앙아 한교협의 노력이 작게나마 결실을 맺은 의의를 강조하고, 중앙아시아 한국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총회에서는 지난 4 년의 회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백태현 교수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였다. 회원들은 중앙아 한교협을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내외에 명망 있는 학자인 박 넬리 교수를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이틀에 걸쳐 개최된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와 중앙아 한교협 정기총회는 차년도 개최지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로 결정하고 막을 내렸다.



단기한국어교실, 교사연수, 대학생 교류의 날

2018년 10월 19일(금)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와 고려주말학교에서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사연수”가, 카자흐 언어대에서 “대학생 교류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국민대 국외파견실습사업단이 주관한 “2018 한국어예비교원 국외실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국외실습단은 지난 7월에 카자흐 세계언어대에서 고교생과 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단기한국어교실”을 개최하였으며, 9월과 10월에는 경력교원 4명과 예비교원 25명을 파견하여 고려주말학교, 자라한글학교, 알마티과학기술협의회 한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카자흐 세계언어대에서는 대학생 교류의 날 행사로 9월 2회, 10월 2회에 걸쳐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과 한국어퀴즈대회를 진행하여,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젊은이의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카자흐 세계언어대와 고려주말학교에서 진행된 한국어 교사연수는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인 이정희 교수(경희대)가 한국어 교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하였다. “한국어 쓰기 교육의 실제”와 “초급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안”에 대한 강의는 교육 현장에서 매우 실용적인 내용이었어서 현지 교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가 끝난 후에는 한국어예비교원 국외파견실습사업단장인 이동은 교수(국민대)와 공동연구원인 조남호 교수(명지대), 이수연 교수(국민대) 등과 함께 한국어교육의 발전과 교수법의 선진화를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7년부터 계속된 한국어예비교원 국외실습사업은 국내 한국어 예비교원의 실습현장 다양화를 위한 국외실습 기회를 마련하고 국외 재외동포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일본, 러시아에서 개최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2년간 국립국어원과 국민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철저한 기획과 준비로 현지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국내 대학들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예비교원들은 국외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실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카자흐 세계언어대 중핵사업단장인 박 넬리 교수를 비롯해 현지 교원들은 카자흐스탄 한국어교육에 매우 유익하고 효과적인 시간이었고, 내년에도 국외실습사업단이 알마티를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